스 가 랴 Zechariah

겨자씨성경연구원
MUSTARD SEED BIBLE INSTITUTION

[1] 핵심

스바냐 14장을 세 단어로 요약해보자

(8개 환상1-6장**) - (금식**7-8**) - (경고**9-14장**)**

[2] 배경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한 포로 후기의 예언자다. 그들은 1차 포로귀환 후에, 16년(주전 536-520)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여 완성시킨 선지자들이다. 당시 1차 포로귀환의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성전재건을 주도한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스 5:1-2). 학개 선지자가 당시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과 예언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메시야의 나라의 건설을 다룬다.
스가랴는 메시아의 책으로 불릴 정도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애독하는 책이다.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내 종 싹"(3:8), "일곱 눈이 달린 한 돌"(3:8-9), 초림(6:12-13),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한 왕(9:9), 은 삼십에 팔림(11:12-13), 종말의 최후 전쟁터인 아마겟돈(12:11), 목자는 왕이지만 매를 맞는 목자(13:7), 마침내 열방을 굴복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세우실 왕(12:8-9; 14:3-9)이다. 신약은 71번에 걸쳐 스가랴서를 인용한다. 그 중에 27번은 복음서에서, 41번은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다. 본서는 구약의 이사야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오실 메시야(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예언을 담고 있다(반게메렌, 예언서연구, p.303).

스가랴서의 기록연대는 바사(Persia) 다리오 왕 때, 주전 520-510년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1부 8개의 환상(1-6장), 2부 금식(7-8장), 3부 두 개의 경고(9-14장)로 나뉜다. 1부 여덟 개의 환상(1-6장)은 포로 후기 귀환자들의 정결과 회복 그리고 성전건축의 문제를 다룬다. 2부 금식(7-8장)은 참된 금식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룬다. 3부(9-14장)는 종말에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도래할 메시야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룬다.

[3] 개요

1부 8개의 환상(1-6장)	2부 금식(7-8장)	3부 두 개의 경고(9-14장)
1. 서론(1:1-6)	1. 참된 금식(7장)	1. 첫 번째 경고(9-11장)
2. 8개 환상(1:7-6:8)	2. 예루살렘의 회복(8:1-17)	2. 두 번째 경고(12-14장)
3. 결론(6:9-15)	3. 종말론적 회복(8:18-23)	

[4] 본문

스가랴서는 3부로 나뉜다.

1부. 8개의 환상(1-6장)

스가랴서의 1부는 8개의 밤의 환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묘사한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1차 귀환한 백성(49,897명, 스 2:64-65)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와 성전건축을 다룬다. 본 단락은 책망의 서론(1:1-6),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본론(1:7-6:8), 결론(6:9-15)으로 나뉜다.

1. 서론: 책망(1:1-6)

스가랴가 소명을 받은 당시의 구체적인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재건을 시도하다가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스 4장)로 16년(주전 536-520) 동안이나 성전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때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실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건축을 재개하도록 했다[학개(학 1:1)와 스가랴(슥 1:1)의 선지자로 부르심의 차이는 2개월 차이다]. 서론은 표제(1절), 진노하시는 하나님(2절),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3-6절), 백성들의 회개(6절)로 이루어진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1:1). **1장 1절**은 스가랴의 표제다. 저자는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Zechariah)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한다"는 뜻으로 매우 흔한 이름이다. 참고로 구약에는 약 서른 명의 스가랴가 등장한다.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신탁이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연대는 다리오 왕 제 2년 여덟째 달(주전 520년 10월)이다.

2-6절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백성들의 회개다. 2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다(3절).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메시지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4-6절에서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포로로부터 귀환한 새 시대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조상들의 죄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법도를 어긴 것"(6절)이었다. 다행히도 백성들은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6절).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낸 '종'(6절)이기에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은 곧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이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되도록 하자(고전 10:11). 전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포로 후기 공동체는 과거를 성찰함으로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권고함으로 본서를 시작한다.

2. 8개의 환상(1:7-6:8)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전의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예언하는 말을 무

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1-6절). 이제부터 8개의 밤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장래의 뜻과 계획을 보여준다. 8개의 환상은 다음과 같다. "네 말과 기수의 환상(1:7-17), 네 뿔과 네 일군의 환상(1:18-21),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2:1-13),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3:1-10), 두 감람나무의 환상(4:1-14),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5:1-4),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5:5-11), 네 병거의 환상(6:1-8)"이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1:8).

1) 네 말과 기수들의 환상(1:7-17)

스가랴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삼 개월이 지나서(주전 520년) 8개의 환상을 보게 된다(7절).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8절).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대리인(천사)들이었다(9-10절). 그들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보고하자, 여호와의 천사(붉은 말을 탄 기수)가 이제 70년이 지났으니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중보 한다(11-12절).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힘든 포로생활을 마치고 시온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13-16절), 다시 풍요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17절)고 회답한다.

2) 네 뿔과 일꾼들의 환상(1:18-21)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을 본다(18절).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대답한다(19절). 여기서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 흩어버린 열국(제국)들일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대장장이 네 명"을 더 보여주신다(20절). 네 일군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원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심판의 도구들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흩뜨린 이방 민족(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환상이다.

3)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2:1-13)

세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본다(2:1-2). 측량줄은 공간을 측량하는 도구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장차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차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4절)는 말로 미루어 예루살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 될 것임을 예감한다. 5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불로 성곽을 둘러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이 되실 것을 약속한다.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셔서 그 곳을 지키시고 임재를 약속하신 것은 장래 이스라엘의 축복과 회복을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이다.

2장 후반부(6-13절)는 지금까지 세 개의 환상(1:7-2:5)을 요약하는 결론부와 같다.

6-7절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겠다는 첫째 환상(1:7-17)의 내용이다.

8-10절은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둘째 환상(1:18-21)의 내용이다.

11-12절은 하나님이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셋째 환상(2:1-5)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

어나시기 때문이다"(13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성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잠잠해야하는 것이다. 1-2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환상의 결론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시겠다는 새 시대의 환상이다.

4)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3:1-10)

선지자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은 하늘 법정의 어전회의를 방불케 한다. 법정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사탄, 여호수아, 천사"였다. 하나님은 고발자 사탄을 책망하신다. 문제는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아서,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1-3절).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대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다고 고발한 사탄을 책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인인 천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4절)고 명하신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의 부정한 모습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곧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사하신 후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4절)고 말씀하신다.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죄를 용서하신 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자신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칭의)로 볼 수 있다. 5절에서 스가랴는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까지 그의 머리에 씌워줄 것을 탄원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부정한 여호수아가 정결한 옷과 관을 쓰고 다시 대제사장으로 회복한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것이다. 그의 회복된 권위에 걸맞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집과 뜰(성전)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6-7절).

8-10절은 네 번째 환상에 따라오는 "예표의 사람들"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이다. '종'과 '순(싹)'과 '돌'로 예표되는 메시야에 대한 약속이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메시야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9절)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성취되었다(히 9:26; 10:12-14).

결론적으로 3장의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불완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종말(그날)에 오실 하나님의 기름부은 종, 메시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될 복음에 대한 환상이다.

5)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4:1-14)

다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본 환상(1-5절, 11-14절)과 두 개의 신탁(6-10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였다. 이 등잔대는 기름 그릇인데 그 둘레에는 일곱 등잔이 있고 각 등잔에는 일곱 관이 달려있었다(1-2절).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좌우에 하나씩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3절).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천사에게 묻자(4-5절), 이에 대한 대답이 두 개의 신탁이다(6-10절). 첫 번째 신탁은 스룹바벨에 대한 신탁이다(6-7절). 성전건축은 인간의 힘(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다(6절). 비록 스룹바벨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제거해주실 것을 약속한다(7절).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성전건축의 완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신탁은 스가랴에 대한 신탁이다(8-10절).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의 성전건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약속하신다(8-9절). 그리고 그가 "크고(큰 산) 작은(작은 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것을 약속한다(10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은 4년 후에 완성된다(스 6:15).

이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4절의 물음(이것들이 무엇인가)의 대답이 여기에 나온다(11-14절). 성전의 등대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두 번씩 기름을 공급해야했다. 그러나 스가랴가 본 등대는 두 감람나무에서 금 기름이 자동으로 흘러나와서 제사장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12절). 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둘"(14절)인데 이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의 핵심은, 성전(하나님나라/ 교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사역은 인간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인 것을 선포한다. 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종(일꾼)들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신의 일꾼(스룹바벨과 여호수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크고 작은 산들을 타개해 나가자!

6)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5:1-4)

5장은 두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었다.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1-4절)과 일곱 번째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5-11절)이다. 먼저,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이다(1-2절).
3절에서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해석한다. 거기에는 도둑(8계명)과 망령된 자(3계명)에 대한 저주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죄로 요약된 십계명(이쪽 글과 저쪽 글/ 모세의 두 돌판을 연상케함)이 적혀 있다. 성경의 두루마리의 저주의 크기가 양탄자(너비 4.57m 길이 9.14m) 만큼이나 크고 넓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크고 엄중할 것을 보여준다(2절).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귀환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뿌리 뽑혀야할 죄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는 점에서 여섯과 일곱 번째의 환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7)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5:5-11)

스가랴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다(5-6절). 에바 속의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을 상징한다(7-8절). 원래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측량용기로 약 두말 통(바구니)에 해당한다. 스가랴가 또 보니 두 여인이 나와서 에바를 시날 땅(바벨론)으로 옮기는 장면을 목도한다(9-11절). 에바 속에 든 여인(악)을 옮긴 것(10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 악을 근원적으로 분리(제거)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다. 에바(바구니)는 원래 있던 자기의 처소, 바벨론으로 돌려보내 진 것이다(11절). 그 결과 악이 사라진 하나님의 새 도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5장의 두개의 환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뿐 아니라(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근본적으로 죄를 뿌리 채 뽑아 내버리고(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예고한 것이다.

8) 네 병거의 환상(6:1-8)

스가랴가 마지막 여덟 번째로 본 것은 "네 병거의 환상"이다(1-3절). 하늘의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단 7:2; 계 7:1)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 온 땅을 심판하시며 통치하신다는 환상이다(4-7절). 특별히 북쪽 바벨론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구절은 진노보다는 안식에 가까운

축복의 말씀이다(11절). 아직도 북쪽 바벨론에는 귀환을 기다리는 많은 유대 민족들(2차와 3차 귀환)이 남아있었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할은 그들을 감동시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재창조(쉼)의 사역이었다(슥 2:6-7).

3. 결론(6:9-15)

이제 결론부(6:9-15)는 8가지 환상을 마치고(1:1-6:8), 면류관을 제작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상징적인 예식을 집행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가져와서 성전에 바친다(9-10절). 스가랴는 그것을 받아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준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싹이라 불리 운다(12절/ 3:8). 일차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싹이라 불리우고 왕관을 쓴 여호수아에게 문자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13절)는 대관식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사 11:1). 15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건축은 "먼 데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공동체 사역"으로 예고한다. '먼 데 사람'들이란 바벨론에서 돌아올 디아스포라 뿐 아니라(사 43:6; 57:19; 단 9:7), 이방인들도 포함한다(슥 2:11; 8:20-23; 학 2:6-9).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1-6장)은 장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한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은 악을 제거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의 회복이기에 시간은 더딜 수 있다. 그러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회복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이 보증한다. 새 시대의 보증은 종말론적 현재적 표징들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새 싹, 일곱 눈 달린 한 돌, 성령, 새 성전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내다보는 보증들이다.

2부. 금식(7-8장)

스가랴는 2년(주전 520-519)에 걸쳐 8개의 환상(1-6장)을 보고 기록한 다음, 다리오 왕 제 사년(주전 518)에 "금식과 예루살렘의 회복"(7-8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다. 본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참된 금식(7:1-14), 예루살렘의 회복(8:1-17), 종말론적 회복(8:18-23)이다.

1. 참된 금식(7:1-14)

7장은 백성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금식에 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금식이라는 제의적 주제를 중심으로 제사의 바른 자세를 선포하고 금식이 금식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를 충족시켜야한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어야한다.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 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7:1).
7장은 벧엘 사람이 사람들을 성전 지도자들에게 보내 "매년 오월에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를 묻는다

(1-3절).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너희가 하는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를 묻는다(4-7절). 과거 칠십년 동안 그들이 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금식이었다.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의 금식을 꾸짖으시며,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금식임을 가르친다.

후반부(8-14절)는 위선적인 삶의 가면을 벗으라고 도전한다. 후반부(8-14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민의 바른 생활은 전반부(1-7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제사, 금식, 구제, 삶)는 제의적인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사랑과 이타적인 삶에 대한 마음과 동기의 문제였다.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행위를 벗고 마음으로 성령과 선지자의 음성(12절)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금식을 받으시겠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12절)는 기도에 대한 무응답(13절), 바벨론 포로(14절),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함(14절)으로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지 돌아보자.

2. 예루살렘의 회복(8:1-17)

8장의 복된 분위기는 7장의 황폐함과 전혀 다르다. 8장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8:1-2). 8장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질투가 7장의 황무함을 8장의 축복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된다.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질투는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3절에서 "여호와는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여호와의 임재로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으로 불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남녀노소 무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다(4-5절). 황무한 예루살렘 땅에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미래의 환상은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다(6절).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출애굽의 신실한 언약(출 19:6)을 지키신다(7-8절).

9-13절은 수미쌍관의 형식으로 한 단락을 이룬다.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9절/ 13절)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 더 상기시킨다. 전에는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13절)고 당부하면서 "손을 견고히 하라"(13절)고 응원한다.

14-17절에서도 "전과 이제"를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셨음을 선포한다. 전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14절),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것"(15절)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16-17절은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는 일상의 예배를 강조한 것이다.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명령이다. 참된 예배는 율법을 지키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내면적 예배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아직도 주일성수의 예배를 드리는 수준인가?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예배를 드려야하지 않겠는가(롬

12:1)!

3. 종말론적 회복의 약속(8:18-23)

8장 후반절(18-23절)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몰려온다는 복된 소식이다. 먼저, 18-19절은 다시 7장에서 질문한 금식에 대하여 답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애통하는 금식은 필요 없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준다.

20-23절은 종말론적 "그날에" 있을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총체적으로 약속한다. 언어가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는 소망의 소식으로 8장은 끝이 난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때로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나라의 종말론적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궁극적인 승리의 날인 재림의 그날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고 달리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자.

3부. 두 개의 경고(9-14장)

스가랴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 것을 살펴보았다. 전반부(1-8장)는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문제를 통해 당면한 성전건축과 귀환자들의 금식에 대한 권면을 다루었다. 후반부(9-14장)는 두 번에 걸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9:1; 12:1)를 통해 미래에 완성될 종말론적 메시야왕국에 대한 예언을 다룬다. 이제 후반부(9-14장)의 첫 번째 경고의 말씀(9-11장)은 이스라엘의 적인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온의 왕인 메시야가 오실 것을 약속한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12-14장)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메시야 왕국의 최종 회복과 완성을 예견한다.

1. 첫 번째 경고(9-11장)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9:1).

9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1-8절)과 메시야의 도래(9-17절)에 대한 말씀이다. 먼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8절)은 수리아(1-2절), 두로와 시돈(2-4절), 블레셋(5-8절)의 순서로 진행된다.

후반(9-17절)은 메시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다. 종말론적 왕의 도래와 통치의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쁨을 선사한다(9절). 공의로운 왕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요(9절) 평화의 왕이시다(10절). 신약의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록한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것이다. 나아가 메시야 왕은 모든 갇힌 자를 해방해 주시는 언약에 신실한 왕이요(11-12절),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용사로 임하신다(13-15절). 더 나아가, 그날에 여호와는 목자로 친히 임재 하여 자기 백성의 양떼를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다(16-17절).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다. 스가랴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의 현재적 통치(현재적 천년왕국)를 충만히 누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자.

10장은 9장에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 선한목자가 되어 유리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다룬다. 10장은 거짓목자들의 죄(1-2)와 심판(3절), 그리고 잃어버린 양떼의 회복(3-12절)으로, 나뉜다.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짓목자들의 죄를 고발한다(1-2절). 풍성한 추수를 거두려고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할 대상은 여호와가 아닌가(1절)? 거짓목자들은 여호와를 "드라빔, 복술, 거짓 꿈"으로 바꿔치기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로 만들었다(2절). 하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목자들과 숫염소"를 가만두실 리가 없다(3절). 여기서 '목자'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요, '숫염소'는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장 서 가는 염소를 가리킨다.
나머지는 선한목자가 되신 여호와가 어떻게 흩어진 자기 양들을 다시 모으셔서 회복시키신 가를 묘사한다(3-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족속을 목자처럼 돌봐주실 것을 약속한다(3절). 그리고 유다족속에게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올 것을 예고한다(4절). 이들은 일차적으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뿐 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유다와 요셉족속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다.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다(5-7절).
8-12절은 "내가"라는 1인칭 화법으로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장면이다. 애굽과 앗수르로부터의 귀환은 문자적인 애굽과 앗수르라기 보다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걸쳐 흩어진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10-11절). 12절은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한다. 만국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한 백성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명예와 권위)을 걸고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거룩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출 19:4-6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자(벧전 2:9).

11장은 매우 난해한 장이다. 이스라엘을 목자 잃은 양에 비유하며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적 목자에 대한 예언을 담는다. 11장은 몰락하는 권력자의 비유(1-3절), 메시아적 목자에 대한 비유(4-14절), 양떼를 버린 목자의 비유(15-17절)로 나뉜다.
먼저, 몰락하는 권력자는 목자와 사자의 비유로 묘사한다(1-3절). 거드름을 피우다가 몰락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요단 숲의 사자는 유다를 상징하며 이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
둘째, 메시아적 목자에 대한 비유다(4-14절). 하나님이 "너는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라"(4절)고 할 때 "너"가 누구인가가 본 단락을 여는 열쇠다. "너"라고 지칭하는 익명의 목자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목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며(11절), 은 삼십에 팔리며(12-13절, 마 27:3-10),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취한 목자(7-10절, 겔 37:16-19)를 종합하면, 이 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적 목자"라고 결론할 수 있다(겔 34:23-24; 37:20-25; 마 27:9-10). 이 메시아적 목자는 많은 고통을 받으며 끝내 은 삼십이라는 노예의 값에 팔리는 고난받는 목자일 것을 암시한다(11:7-14; 13:7-9). 여기서 너를 스가랴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선지자가 장래 메시아적 목자의 사역을 대행하는 상징적인 그

의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양떼를 버린 어리석고 못된 한 목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할 수 있다(15-17절).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가 국가를 대표하든 교회를 대표하든 사회의 조직이나 기업을 대표하든 모든 권위의 질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며, 자기에게 맡기신 분량에 충성스러워야한다.

2. 두 번째 경고(12-14장)

두 번째 경고의 말씀(12-14장)은 여호와의 날에 열방에 대한 최종 심판과 장차 도래할 메시야왕국에 대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12:1). 12장은 종말의 예루살렘의 승리(1-9절)와 므깃도 골짜기의 애통(10-14절)을 다룬다. 1절은 두 번째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의 표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 귀환 후 새롭게 형성된 남북을 합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칭한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시된다(1b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 만물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2-9절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열국에 대한 심판과 함께 예루살렘의 승리를 선포한다. 열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만(2-3절), 최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자신의 권능으로 열국을 무찌르시고 예루살렘을 승리하게 하신다(4-9절).

후반부(10-14절)는 므깃도 골짜기의 애통이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통곡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10절).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나라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는 마치 므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백성이 의인 왕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크게 애통하며 돌아올 것을 내다본다(11절). 예루살렘의 큰 애통의 회개 역사는 "온 땅 각 족속들의 회개"(12절)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모든 남은 백성들은 즐거이 돌아올 것을 그린다(12-14절).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최후 전쟁터인 아마겟돈이 등장한다(계 16:13-16). "아마겟돈"이 히브리어 '하르'(산)와 '므깃도'의 합성어로 "므깃도 산"이란 의미인데 이는 우리의 흥미를 매우 자극한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자!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1-6절)과 연단(7-9절)을 다룬다.
1-6절은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을 다룬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수정같이 맑은 샘물로 씻어 주실 것이다(겔 36:24-25).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척결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신다(2-6절).
더 나아가 7-9절은 메시아 목자의 수난을 통해 그들의 양떼 역시 잠시 흩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을 예언한다. 비록 환난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2/3는 멸망하고 오직 1/3만 남아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겠지만,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

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올 것이다(9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우리"(슥 13:7; 마 9:36)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며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는 것을 보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라"(마 9:38)고 한탄하시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신실한 일꾼이 되자.

14장은 여호와의 날의 최종 심판과 구원(1-15절), 그리고 스가랴 묵시의 결론으로서의 하나님나라의 영광(16-21절)이다.
첫째,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1-5절). 그 날의 최후 심판은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여 먼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1-2절). 3-5절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사로 등장한다. 여호와는 이방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친히 감람산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둘째, 여호와의 날에 성취될 하나님나라의 왕국과 구원을 묘사한다(6-11절). 종말론적 하나님나라는 옛 창조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 친히 여호와는 홀로 한분이신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신다(6-9절). 10-11절은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략한 묘사다.
셋째,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최종 심판이 등장한다(12-15절).
넷째, 스가랴서의 묵시적 종말론의 결론이다(16-21절). 모든 열방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16-19절). 마지막 그날에는 가장 하찮은 것(말, 말방울, 모든 솥과 주발 등)까지 성속의 구별이 없이 탁월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차별과 장벽(인종, 성별, 빈부귀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룰 것이다(갈 3:28-29).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파렴치한 장사꾼)이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영광과 평등과 정의로움을 묘사한 말이다.

이미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확실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끝이 보장된 싸움이다. 주변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모순으로 가득차 보일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스가랴 묵시의 최종 성취는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 22:7, 12, 20)고 세 번씩이나 사도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5] 스가랴의 교훈과 적용

1. 스가랴서의 서론(1:1-6)은 과거 역사의 중요성을 교훈한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과 성경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2. 스룹바벨에게 주신 신탁(4:6-7)은, 성전(교회)을 세우는 사역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된다.

하나님나라(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강조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 놓아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3. 7-8장은 금식에 대한 소중한 기독교의 전통이다.

나는 최근에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했는가(사 58:3-12)?

일 년에 단 한 차례라도 조용히 금식(2-3일)하지 않겠는가?

4. 스가랴에는 신약이 사용한 메시아의 예표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순(싹과 가지), 돌, 감람나무, 나귀 타신 겸손의 왕, 새 언약의 피, 모퉁이 돌, 은 삼십, 감람산 동편에 서신 발, 여호와께 성결 등이다.

새언약(그리스도)으로 성취된 옛언약의 모형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